

미래엔과 동아일보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중학교 자유학습지

www.m-teacher.co.kr
edu.donga.com

미래엔의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Mirae N 엠티처

www.m-teacher.co.kr

vol.22 | 2018년 8월호

추천!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고양신한류홍보관의 ‘영상 콘텐츠 제작과정 체험’ ‘연기’부터 ‘제작’까지...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드라마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고양신한류홍보관 제공

드라마, 영화 등 한편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선 작가와 감독 등 제작 전문가뿐 아니라 의상과 소품, 특수효과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내 위치한 고양신한류홍보관은 중·고교생이 이러한 영상산업 관련 직업군들을 살펴보고, 영상 콘텐츠의 제작과정을 이해하도록 돕는 ‘영상 콘텐츠 제작과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고양신한류홍보관은 고양시가 제작지원한 영상 콘텐츠의 의상과 소품 등을 전시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영상 콘텐츠 제작과정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멘토 강사와 함께 홍보관 곳곳의 전시 공간을 둘러보며 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직업들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듣는다.

△시나리오·콘티·로케이션북 △의상·소품 △세트장 △특수효과 영상 등 홍보관 구석구석을 관람하며 △작가·콘티작가·로케이션 매니저 △의상·소품 제작자 △세트 제작자 △특수효과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업인들을 탐색해보는 것.

홍보관 관람을 마친 후 학생들은 4~5명씩 조를 이뤄 앞서 살펴본 직업들의 역할을 하나씩 맡아 간단한 영상을 직접 제작해본다. 인물구성과 배경, 주제가 적힌 쪽지를 뽑아 그에 맞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이때 홍보관에 비치된 각종 의상과 소품, 세트장을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실감나는 제작체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들은 홍보관 내 영상관에서 상영된다. 학생들은 세분화된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영상산업과 관련된 직업군을 깊이 이해하고, 보다 확장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다.

‘영상 콘텐츠 제작과정 체험’ 프로그램은 고양시에 소재한 중·고교의 경우 꿈길 홈페이지에서 참가 접수가 가능하며, 그 외 지역 학교는 전화문의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31-908-3236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체험활동 연관 직업

* 콘티 작가 : ‘콘티’란 글로 쓰인 각본(시나리오)이 영상으로 연출되기 위한 시각적 설계도다. 즉 콘티 작가는 감독의 요구를 파악해 감독의 머릿속 이미지를 재현해주는 사람이다. 각 장면의 기본적인 화면구성부터 카메라 움직임, 효과 등 세부요소를 표현해야하기 때문에 미술·디자인적인 능력 외에 영화 관련 지식도 요구된다.

● KOEM 해양환경교육원의 ‘해양환경체험교육’

“특명! 기름으로 오염된 바다를 정화하라”



기름오염 방제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의 모습. 해양환경교육원 제공

KOEM 해양환경교육원은 학생들에게 해양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해양환경체험교육’을 운영한다. 해양환경체험교육은 총 2시간 동안 진행되며, 크게 △해양환경교육 △기름오염 방제체험 △해양안전교육 △도전! 해양박사!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해양환경체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강의를 듣는다. 이후 ‘해양환경교육’ 시간에 해양환경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아보고, 시청각 자료를 통해 해양 생태 및 수질 등 해양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기름오염 방제체험’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다. 바다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정화를 위해 어떤 장비가 사용되며, 장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인공해안이 설치된 조파 수조가 활용된다. 학생들은 실제로 바다가 기름에 오염된 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 방제작업을 체험해봄으로써 해양오염의 심각성 및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는다.

방제체험이 끝난 뒤에는 구명뗏목과 구명조끼, 비상식량을 체험해볼 수 있는 ‘해양안전교육’이 진행된다. 학생들은 구명뗏목에 탑승한 뒤 뗏목에 비치된 다양한 종류의 구명조끼를 직접 착용하고, 비상식량을 먹어보며 해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을 익히고, 해양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 밖에 ‘도전! 해양박사!’ 시간에는 해양 환경 관련 OX 퀴즈를 풀어보며 당일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해양환경체험교육’은 공단방문형 교육과 학교방문형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학교방문형의 경우 실험키트 및 교재로 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회당 최대 160명까지 수용가능하다. 연중상시(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비용은 무료다. 참가를 원할 경우

담당

자와 유선협의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문의
051-400-7725

▶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체험활동 연관 직업

* 해양환경기사: 물리, 화학, 지질 및 해양생물학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해양 개발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연구를 하는 사람. 해수의 물성(수온, 압력, 염분), 해저 지각의 운동 및 퇴적물의 분포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양학적 자원을 개발하거나, 해양환경에 대한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해양 구조물을 연구·설계한다. 자연과학 관련 지식을 비롯해 세심한 관찰력과 논리적 사고, 창의력 등이 요구된다.